

전북대 심하영 박사과정생, 방사선방호 미래인재상

전북대학교 플라즈마및양자빔응용공학과 심하영 박사과정생이 최근 제주도에 열린 2023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제2회 방사선방호 미래인재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방사선 분야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구자에게 선정한다.

이에 심하영 박사과정생은 학생은 최근 2년간 다수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참여,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발표 등 방사선방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다수의 방사선방호 분야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SD 논문 게재 등 우수한 연구 실적도 인정받았다.

심하영 박사과정생은 "이 상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 앞으로 우리나라 방사선방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대상 순창공장, 군에 청정원 제품 16종 물품 기탁

대상주식회사(대표 임정배) 순창공장(공장장 박동숙)은 지난 11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청정원 제품 16종의 물품 (250만원 상당)을 순창군에 기탁했다.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은 대상그룹이 장류의 메카인 순창에 장류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자 농공단지에 건립했으며, 순창공장은 장의 기본인 깨끗한 원료와 전통 발효 제조 공법을 기반으로 순창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다.

박동숙 순창 공장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달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매년 기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진화형 기업인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된 물품은 지역의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은행 김제지점, 저소득 가정에 방한키트 기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 김제지점(지점장 강장오)은 12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350만 원 상당의 방한키트 80박스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강장오 지점장은 "동절기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와 이웃사랑의 온정을 더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방한키트는 담요·수면바지·발열내의·넥워머·장갑 등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꾸준히 지역사회에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전북은행 김제지점에 감사드리며,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가족센터, 위기가구 난방용품 지원

남원시 가족센터는 12일 KB국민은행이 후원한 난방용품을 취약·위기가구 15가구에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3백만원을 후원하였으며, 사전에 조를 통해 △전기매트 67구 △이불 57구 △난방유 4가 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였다.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약·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해 나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연말연시 온정의 손길 잇따라

전주지법 남원지원·골프존 카운티 드래곤,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맞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골프존 카운티 드래곤에서 성금 1,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모인 성금은 매달 직원들의 월급 일일액을 모아 기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며, 기탁식에 참여한 김유정 지원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성금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골프존 카운티가 운영하는 드래곤 골프장(남원대신면)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상생을 목표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희망 나눔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최희식 남원시장은 "남원지원과 골프존 카운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 2024년에는 남원시인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남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기탁된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



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선정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2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누어 매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한경봉 의원은 '좋은조례' 부문에서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경봉 의원은 제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4~7대 군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다년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미래신임을 견인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한경봉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 공모에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검증'을 철저히 했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보자에게 대해 엄밀한 잣대를 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군산시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을 확고히 다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경봉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려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관련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본 상은 시민단체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기반으로 한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시·도 교육감,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의 정책 발의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권위있는 시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2023년 시상식은 12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진안군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가져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12일 오전 10시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17회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규 군의장 김병갑 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육원문 행정복지국장, 관내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10개면 봉사단 24개 단체 및 협약기관 회원 총 3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2023 자원봉사 왕'으로 선발된 주천면 김경남 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하여 자원봉사 유공자 14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자원봉사의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제7회 진안홍삼 고추장 대축제"로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인 진안을 홍보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진안군의 특산물인 홍삼과 고춧가루를 재료로 사용하고 참가한 고추장을 봉사단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담그는 일이



있었다. 이날 만들어진 고추장은 총 1,000킬로그램(500명)으로 우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봉사자들이 정성껏 전달하였다.

/진안=우태민 기자



데이벨·래미F&B대표,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무주군은 12일 데이벨(주)과 래미F&B(대표 이득주)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득주 대표는 "무주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며 "작은 정성이 우리 무주 지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해마다 지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주민들을 위해 숭선수행해주시는 데이벨과 래미F&B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벨(주)과 래미F&B회사는 무주제2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과일잔과 역산농축제품, 분말 등의 생산·판매업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동충동, 영양섭취 취약가정 밀반찬 지원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영양 섭취에 취약한 가정 25세대를 선정하여 밀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동절기 영양 섭취에 취약한 가정에 영양 가득한 밀반찬을 지원해 건강한 겨울나도록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 주회 가정방문을 통해 지원하며,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확인과 건강한 생활유지 지원 및 겨울철 건강관리 방법 안내와 안부 확인을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태봉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동민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청년 자립 도전 참여자,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

남원시가 지원하는 남원지역자활센터 청년 자립 도전사업단 참여자 1명이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도전사업단은 사회 경험이나 직업 경험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청년층의 욕구나 특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합격자는 소양교육 및 맞춤형 직무교육, 안정된 공부환경 제공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해왔다.

임흥근 자활센터장은 "이번 공무원 합격 소식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좋은 동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남원시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자립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각종 자활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한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1일 전주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복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한복의 역사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形形色색의 평복과 궁중복을 직접 입어 보며 있는 순서와 방법, 고름 매기, 한복 정리하기 등을 체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예린(전주남초 6)학생은 "유치원 때 입어 보고, 한복을 입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친구들하고 함께 한복을 입어 보는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후배들에게도 한복체험교육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경은(실과교과) 교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들에게 우리 한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복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전주교대 미술실과관 의생활교육실실에서 지역이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더불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떡국떡 나눔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 회원들이 쌀소비 촉진과 불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떡국떡을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12일 농민 집 조리실습실에 모여 가래떡 자르기 및 포장 작업을 했으며 이를 자적장애인 시설인 '하늘의집' 등에 기탁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6개 읍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불우 소외계층가정 등에 직접 전달한 떡국떡은 300상자(2kg/박스)에 달한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윤정순 회장은 "농부의 마음, 엄마의 정성이 우리 쌀로 빛을 띄운 순수 자르고 포장에, 전달까지 회원들이 직접 다 했다"라며 "따뜻한 떡국 한 그릇에 세상 시름 눈 녹듯 사라질 진심으로 비련다"라고 전했다.

현재 4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에서는 올해도 나눔·봉사, 자연친화 활동,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과제 교육과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는 등 농촌 지역 여성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매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등 무주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